

# 安珦의 生涯와 行蹟

장 동 익\*

## 차례

- I. 머리말
- II. 생애의 정리
- III. 행적의 검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려왕조가 대원몽고국의 무력에 압도되어 제후국으로 전락하였던 13세기의 재상 안향의 생애와 행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안향은 禮部試에 급제한 후 文翰官署를 거쳐 국왕의 측근직인 내시원에 들어갔다가 감찰어사를 거쳐 외직인 尙州判官에 임명되었다. 이후 어사대·중서문하성 등에서 중견관료로 활약하다가 국왕의 측근직인 승지에 임명되었고, 원과의 관계가 긴밀히 전개되는 가운데 정동행성의 원외랑·낭중·유학제거 등의 요직을 겸직하다가 재상에 임명되었다. 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견관료일 때 管理職인 外官과 尙書6部の 관직을 역임하지 않고 주로 중서문하성·정동행성 등의 최고정책결정기관에 재직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안향은 화려한 경력을 거쳐 1294년(충렬왕 20) 이후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직에 올랐으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왕 측근세력들의 跋扈로 인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안향은 그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학문적인 수준이나 문헌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의 역관에서 문한기관에의 근무·고려 및 원의 學館職 역임·文翰職 겸직 등을 통해 볼 때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임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학문의 진흥을 위한 공헌은 항상 興學養賢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는 점이나 국학의 재건·심학전의 설치·중국 강남에서의 서적구매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안향이 처음으로 朱熹의 성리학을 고려에 도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긍정·부정의 두 입장이 있어 왔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안향이 성리학의 수용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견해는 수긍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남송의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이 고려에 유입된 것은 안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성리학이 고려에 수용되는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없다.

성리학의 도입에서 안향이 차지한 위상은 높았지만 그의 역할이 당시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1319년(충숙왕 6) 그가 文廟에 從祀될 때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아들 안우기는 政界의 핵심에서 밀려났고, 문생인 尹宣佐·尹安庇·李彥沖·洪侑·金光軾 등도 힘이 되지 못하였다. 단지 충선왕의 지우를 받고 있었던 문생 辛葦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안향의 행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려가 大元蒙古國의 제후국으로 정착하던 시점에서 정치적 현실을 수긍하면서 안정된 內治의 도모와 文風의 진작만이 왕조를 온존시킬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지닌 文翰官僚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고려왕조, 원제국, 안향, 권문세족, 신흥사대부, 정동행성, 좌우사, 유학제거사, 성리학

## I. 머리말

고려왕조는 20여 년에 걸쳐 몽고군에 저항하였으나 1258년(고종 45) 최씨의 무신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다음해에 몽고국과 복속을 전제로 하여 일단 강화를 맺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씨정권의 비호 하에서 성장했던 김준·임연 등의 무신집권자들은 이후 元宗代(1259~1274년)의 10여 년간에 걸쳐 몽

고국에의 완전한 항복을 수긍하지 않으려 하다가 1270년(원종 11)에 타도되었다. 이를 계기로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대몽항쟁을 기치로 또 다른 고려정부를 수립하여 3년간 중앙정부와 대립하여 한반도는 세 개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다.

곧 강화도와 개경을 연결하여 한반도의 中部·東部를 지배한 고려정부, 西京을 중심으로 그 이북을 지배하고 있던 洪茶丘를 위시한 東征元帥府의 몽고군, 그리고 서남부에 세력을 떨치던 三別抄 등에 의한 세력분할이었다.<sup>1)</sup> 그렇지만 앞의 두 세력의 연합에 의해 삼별초는 타도되고 고려정부가 주체세력으로 부각되었으나, 북부지역에는 몽고군이 여전히 주둔해 있으면서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국가의 존폐를 가늠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충렬왕이 즉위하였으나(1274년), 몽고의 세계제패를 위한 일본원정이 추진되어 한반도는 새로운 전쟁의 전진기지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몽고국에 정치를 위시한 모든 면에 걸쳐서 더욱 예속되어 갔다.

이러한 난국에 처한 고려의 지배층들은 국가의 온전한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의 방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의 정국을 이끌어 갔던 인물들의 생애와 현실대응의식 그리고 사상들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기의 연구에서 주목되어야 할 관료로는 科擧출신의 宰相 許瑋·洪子藩·鄭可臣·安珦·薛公儉·兪千遇, 武將출신의 재상 金方慶, 譯官출신의 재상 趙仁規 등이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생애와 활동이 부분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향(1243~1306)에 대한 연구는 그에 의한 성리학의 수용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일찍부터 제시되기도 하였으나,<sup>2)</sup> 이후에는 성리학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교육·사상

1) 삼별초도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 高麗國의 名目으로 몽고와 직접 통교하려고 하였고, 일본과 연결하여 몽고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sup>3)</sup> 이와 함께 그의 文廟從祀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sup>4)</sup> 그에 대한 後代의 평가에 대한 검토도 있었으며,<sup>5)</sup> 최근에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儒學思想의 學脈에 대한 연구서도 출간되었다.<sup>6)</sup> 이와 함께 안향에 의한 朱子學 書籍의 수입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었다.<sup>7)</sup>

이러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안향에 관련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고, 종래에 간과되었던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청된다. 이를 위해 안향의 생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年譜形態로 정리하고, 그중에서 주목되는 업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13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大元蒙古國의 支配秩序 하에 들어가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받은 고려정부의 諸侯國으로서의 位置降等, 새로운 정치세력의 再編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수용하여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과거 출신의 관료 안향의 생애와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 2) 尹瑢均, 『尹文學士遺稿』, 조선인쇄주식회사, 1933.
  - 3) 金春鉉, 「晦軒 安珦의 교육사상」, 『공주교대논문집』 12-2, 1976 ; 金昊鍾, 「安珦의 儒教振興運動에 대한 研究」, 『安東文化』 2, 1981 ; 金柄九, 『晦軒思想研究』, 學文社, 1983 ; 李南福, 「고려 후기 朱子學의 수용진개와 安珦의 위치」, 『부산사학』 18, 1990 ; 노평규, 「안향에 대한 사상사적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13, 1992 ; 孫仁鍊, 「安珦의 교육사상」, 『水邨朴永錫화갑논총 한국사학논총』 하, 1992 ; 邊東明,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 연구』, 일조각, 1995.
  - 4) 金鎔坤, 「고려 충숙왕 6년 安珦의 文廟從祀」, 『이원순교수화갑기념논총』, 교학사, 1986.
  - 5) 全在康, 「安珦의 선비적 面貌와 後代的 評價」, 『대동한문학』 14, 2001.
  - 6) 金병구, 『회현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 신지서원, 1996 ; 김기주, 『영남의 학맥 1, 안향에서 주세붕까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7) 森平雅彦, 「朱子學東傳의 國際的背景」, 『アジア遊學』 50, 2003 ; 「朱子學の高麗傳來と對元關係-安珦朱子學書將來說の再檢討」, 『史淵』 143, 2006.

## II. 생애의 정리

안향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후대에 만들어진 기록이나 그가 남긴 시문을 통해 그의 행적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관련된 주된 기록은 『고려사』 열전과 후대에 편찬된 『회헌선생실기』뿐인데, 먼저 이들 자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자.

『고려사』 열전18에 수록된 安珦에 대한 내용은 당시 여타 인물의 그것과 같이 대체적인 형편만을 정리하였기에 그의 경력이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또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여 주목되는 자료도 있지만, 그의 활동 중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月日이 분명치 않은 한계점도 있다. 또 『회헌선생실기』는 後代에 안향의 묘지명·家乘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이의 내용에 대한 사료적인 검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8)</sup>

이들 두 자료는 특정부분에서는 소략한 점도 있고, 전후의 사실이 뒤섞여 있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사』 세가·『고려사절요』의 내용, 아들 安于器의 묘지명(을<sup>9)</sup> 위시한 국·내외의 기타 자료를 추가하여 안향의 주요한 행적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될 수 있다.<sup>10)</sup>

8) 이에 대한 검토로 森平雅彦, 『晦軒實記刊行始末初探』, 『年報朝鮮學』 9, 2006이 있다.

9) 『謹齋集』 3, 安于器墓誌銘.

10) 안향의 생애에 대한 정리는 『회헌선생실기』 3, 연보를 바탕으로 한 김병구, 『회헌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 신지서원, 1996; 森平雅彦, 『朱子學の高麗傳來と對元關係—安珦朱子學書將來說の再檢討』, 『史淵』 143, 2006이 있으나 문제점이 없지 않아 필자가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재정리하였다.

시 기	연 령	행 적
1243년(고종 30)	1	• 본관은 興州(順興), 古名은 士蘿, 初名은 安裕, 曾祖는 子美·祖는 永儒·父는 密直副使致仕 孚·外祖는 禮賓丞 禹成允(剛州人). 興州(順興) 城 남쪽 坪理村 竹溪에서 出生(列傳18安瑠/實記3年譜/海東榜目). <sup>11)</sup>
1257년(고종 44)	15	• 이 시기의 전후 興州城 북쪽 宿水寺(現 紹修書院에 위치한 寺院)에 往來하면서 勉學하였고, 洗硯池에서 벼루를 씻기도 함(實記3年譜).
1260년(원종 1)	18	• 9월 4일(기사) 知貢舉 參知政事 李藏用·同知貢舉 同知樞密院事 柳璥이 進士를 選拔하자, 乙科 魏文卿(魏文凱, 魏文愷) 등 3人·丙科 7人·同進士 21人·明經 2人에게 及第를 下賜함(世家25·志27選舉1). 이때 金 叵(乙科 第3人)·安瑠·李尊庇 등도 급제함(列傳18柳璥/金叵墓誌銘·李尊庇墓誌銘·東人之文五七金叵·安瑠).
이 후		• 이후 秘書省 校書郎에 임명되었다가 翰林院의 直翰林院을 거쳐 內侍에 임명됨(列傳18安瑠).
1265년(원종 6)	23	• 아들 于器가 出生함(安于器墓誌銘/實記3年譜).
1270년(원종 11)	28	• 6월 1일(己巳) 將軍 裴仲孫·夜別抄指諭 盧永禧 등이 三別抄를 거느리고 叛亂을 일으켜 承化侯 溫을 擁立하고, 官府를 설치하여 官員을 임명함(世家26·90顯宗平壤公基承化侯溫·130裴仲孫/節要18). • 이후 삼별초가 名望이 있는 安瑠을 起用하기 위해 懷柔·脅迫을 加하면서 麾下에게 철저히 監視하게 하였으나 智謀로써 탈출하여 元宗의 稱讚을 받음(列傳18安瑠).
1271년(원종 12)	29	• 西道에 使臣으로  파견되어[奉使] 清廉하다는 評을 들어 內侍院에 들어감. 內侍院의 宿弊를 上奏하고 革罷함(列傳18安瑠).
1272년(원종 13)	30	• 監察御史에 임명됨(列傳18安瑠). <sup>12)</sup>
1275년(충렬왕 1)	33	• 尙州判官에 임명되어 이후 3년간 在職함. 이때 女巫 3인이 妖神을 받들고 郡縣을 橫行하며 官民을 眩惑시키다가 尙州에 이르자 安瑠이 下獄시키고 治罪하여 自服을 받게 되자 妖邪함이 終熄됨(列傳18安瑠).
1277년(충렬왕 3)	35	• 9월 日本遠征을 위해 合浦에 兵馬指揮營을 設置하고 戰艦建造·軍糧貯蓄을 위해 장정을 징발하고 세금을 거두자 人民이 곤경에 빠짐. 또 王命[宣傳消息]·鷹坊에 의한 税金追徵에 의해 人民의 苦痛이 심하였는데, 安瑠이 人民의 蘇生을 위해 노력함(實記3年譜). • 이해에 慶尙道按察使[廉使]가 <sup>13)</sup> 告課評定에 安瑠의 清廉함을 褒彰하자 版圖佐郎에 임명됨(列傳18安瑠).
1278년(충렬왕 4)	36	• 이해에 (특별히 발탁되어) 殿中侍史에 임명됨(列傳18安瑠). <sup>14)</sup>
1279년(충렬왕 5)	37	• 이해에 元에  파견되는 禿魯花에 選拔되어 國子司業으로 昇進함(列傳18安瑠). <sup>15)</sup> • 3월 帶方公 激을 따라 元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됨(世家29).
1280년(충렬왕 6)	38	• 이해에 禿魯花로 元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이 후		• 右司議大夫에 임명됨(列傳18安瑠).
1282년(충렬왕 8)	40	• 아들 于器가 進士試에 合格함(18歲)(安于器墓誌銘/東人之文五七安瑠).

시 기	연 령	행 적
1288년(충렬왕 14)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5일(기축) 左副承旨에 임명됨(世家30).</li> <li>• 4월 1일(을묘) 郎將 金精이 元에서 王을 征東行尙書省 左丞相으로 삼는다는 詔書를 가져옴(世家30).</li> <li>• 4월 24일(무인) 忠烈王이 群臣을 香閣에서 饗宴할 때 左副承旨 安珣이 詩를 지어 바침(世家30).</li> <li>• 9월 21일(계묘) 知貢舉 僉議中贊 許珙·同知貢舉 左承旨 安珣이 進士를 선발하자 尹宣佐 등 33인에게 及第를 下賜함(世家30·志27選舉1).</li> </ul>
1289년(충렬왕 15)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1일(기유) 世祖가 王에게 金甌을 하사함(史30). 이때 征東行省都事 安珣을 奉議大夫·王京等處儒學提舉로 任命함(節要21/列傳18安珣/東人之文五七9安珣).</li> <li>• 9월 元이 高麗國儒學提舉司를 설치하였는데, 從5品の 官署였음(世家30/元史15).</li> <li>• 11월 7일(임자) 忠烈王·王妃(齊國大長公主)·世子가 元에 가는데 趙仁規·印侯·廉承益·安珣·宦者 方臣祐 등이 隨從함(世家30).</li> </ul>

- 11) 安珣의 初名인 安裕는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文宗의 이름인 珣字를 避諱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문종과 그의 아들 단종의 在位期間이 단기간이어서 避諱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려사』의 편찬에서 반영되지 못하여 金珣·安珣 등의 이름이 그대로 온존할 수 있었다. 그 후 1482년(성종 13)에 珣字가 避諱되었는데(『성종실록』 145, 13년 윤8월 14일; 『명종실록』 232, 5년 2월 11월), 안향의 경우는 그 이전에 安裕로 개칭되기도 하였으나 조선왕조 후기까지 安珣도 사용되었다.
- 12) 이의 연대추정은 안향의 後孫인 狹濟가 所藏하고 있던 「世乘」에 依據하였다는 『회헌선생실기』 3, 연보에 의거하였다.
- 13) 이해의 경상도안찰사는 春夏等〔前半期, 1월~6월〕 崔堯, 秋冬等〔후반기, 7월~12월〕 崔諤이었다(『慶尙道營主題名記』).
- 14) 이의 연대추정은 『회헌선생실기』 3, 연보에 의거하였다.
- 15) 그의 열전에 의하면 '秃魯花에 선발되고 例에 따라 國子司業에 昇進하였다'고 되어 있고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1279년(충렬왕 5)의 일로서, 이해의 3월 10일(丁巳) 帶方公 澁을 보내어 秃魯花〔(turqaq, 弓箭陪)를 거느리고 元에 가게 한 것을 말한다. 이에 참여한 金方慶의 子 金忻·元傳의 子 元貞(元瓘, 元灌)·朴恒의 子 元滋·許珙의 子 評·洪子藩의 子 順·韓康의 子 射奇·薛公儉의 子 之冲·李尊庇의 子 瑀·金周鼎의 子 深·典法判書 朴暉의 아들 朴全之(李藏用的 外孫) 등 衣冠子弟(公卿子弟) 25인에게 官職을 3等を 뛰어〔超〕 除授하였다(『고려사』 세가29, 충렬왕 5년 3월 10일; 『고려사』 열전17, 金方慶忻·朴全之; 「元瓘墓誌銘」; 「李尊庇墓誌銘」; 「朴全之墓誌銘」: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006 소수). 이때 年齡을 알 수 있는 인물은 金忻(24세 추정)·元貞(元瓘, 33세)·許評(20대전반 추정)·李瑀(20대전반 추정)·金深(17세)·朴全之(30세)·安珣(37세) 등인데, 安珣이 가장 年長者임을 보아 秃魯花를 引率한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 기	연 령	행 적
1289년(충렬왕 15)	47	• 이해에 元 世祖가 安珣을 征東行中書省 左右司 員外郎으로 임명하고 이어서 郎中으로 昇進시킴(列傳18安珣). <sup>16)</sup>
1290년(충렬왕 16)	48	• 3월 24일(정묘) 忠烈王·王妃·世子가 元에서 돌아옴(史30·87年表2). 이때 안향도 함께 歸國하였는데, 이때 안향은 大都에서 朱子를 筆寫하고 孔子·朱子の 肖像畫를 模寫하여 돌아왔음(實記3年譜).
1292년(충렬왕 18)	50	• 11월 16일(계유) 忠烈王이 疾患으로 微行하여 密直 安珣의 집에 移御함(世家30). • 11월 17일(갑술) 王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將軍 高世를 元에 보내 醫員을 요청함(世家30). • 11월 27일(갑신) 왕이 안향의 집에서 中贊 金方慶의 집으로 移御함(世家30/實記3年譜).
1293년(충렬왕 19)	51	• 3월 10일(병인) 王妃(薊國大長公主)가 疾患으로 密直 安珣의 집에 移御함(世家30). • 3월 29일(을유) 世祖가 忠烈王에게 推忠宣力定遠의 功臣號를 내리고, 僉議使司를 都僉議使司로 개칭하고 從2品 官衙로 昇格하고 兩臺銀印 1顆를 하사함(世家30·72輿服1印章·76百官1門下府). • 4월 27일(계축) 大殿에서 宴會를 開催하고 功臣號를 받은 것을 賀禮하였는데, 안향이 시를 지어 하례하자 米 50石을 下賜함(世家30).
1294년(충렬왕 20)	52	• 4월 11일(신묘) 同知密直司事 安珣을 東南道兵馬使(合浦鎮邊萬戶?)로 삼아 合浦에 出鎮하게 함(世家31/列傳18安珣). <sup>17)</sup> • 7월 19일(정묘) 大將軍 劉碩을 東南道兵馬使(合浦鎮邊萬戶?)로 삼아 合浦에 出鎮하게 함(世家31). 가을[秋]에 東南道兵馬使 安珣이 歸京함(東人之文五七9: 東文選14甲午秋自鎮邊歸道次京山府示太守李東庵). • 10월 8일(갑신) 知貢舉 安珣·同知貢舉 閔漬가 進士를 선발하자 尹安庇 등 33人에게 及第를 下賜함(世家30·志27選舉1). • 12월 26일(신축) 안향이 知密直司事에 임명됨(世家31).
1295년(충렬왕 21)	53	• 1월 24일(기사) 안향이 密直司使에 임명됨(世家31).
1296년(충렬왕 22)	54	• 2월 6일(갑진) 안향이 三司左使에 임명됨(世家31).
1297년(충렬왕 23)	55	• 12월 13일(임인) 안향이 僉議參理·世子武保에 임명됨(世家31/列傳18安珣).
1298년(충렬왕 24년, 충선왕 즉위·퇴위년)	56	• 5월 6일(신묘) 忠宣王이 官制를 改編할 때 安珣이 參知機務·行東京留守·集賢殿大學士·羅林府尹에 임명됨(世家33/列傳18安珣). • 7월 14일(무술) 다시 官制를 고칠 때 安珣이 僉議參理·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에 임명됨(世家33·列傳18安珣). • 8월 17일(신미) 忠宣王과 王妃(薊國大長公主)가 元에 가면서 二罪(斬刑과 絞刑) 이하를 宥赦함(世家31·33·列傳2忠宣王薊國大長公主). 이때 安珣·白頤正이 隨從함(列傳18安珣/淡庵逸集2白頤正行狀). • 8월 이후 忠宣王이 元에 들어가니 成宗이 丞相을 통해 扈從臣 僉議參理 安珣에게 王과 王妃(薊國大長公主)가 不和한 理由를 물음(節要22/史105安珣).

시 기	연 령	행 적
1299년(충렬왕 25)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 21일(기해) 宋玠을 監修國史로, 安珣을 修國史로, 閔漬를 同修國史로 임명함(世家31).</li> </ul>
1300년(충렬왕 26)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에 安珣이 都僉議贊成事に 임명되었으나 政權을 잡은 者[用事者]의 미움을 받아 僉議中贊으로 致仕하게 되었지만 곧 贊成事로 복직함(列傳18安珣).<sup>18)</sup></li> </ul>
1301년(충렬왕 27)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 7일(정축) 征東行省 左丞 耶律希逸이 文廟를 拜謁하고 諸生으로 하여금 詩를 짓게 함(世家32). 이때 國子監이 수차에 걸친 兵禍로 인해 2間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禮官이 安珣의 집 뒤의 精舍를 文廟[聖廟]라고 하면서 耶律希逸을 引導하여 拜謁하게 하였다고 함. 또 이때 安珣이 自身の 邸宅을 國家에 바치고 西部 良醴洞으로 移住하였고, 土地와 男女 奴婢 各 100人을 國學에 歸屬시켰다고 함(設文瑣錄; 實記3年譜).<sup>19)</sup></li> <li>5월 6일(갑진) 耶律希逸이 돌아감. 耶律希逸이 王에게 治民의 術策을 깨우쳐주고 宰輔에게 憂國事를 責하고 文廟를 새로 짓게 하여 儒風을 떨치게 하였음(世家32). 이때 耶律希逸은 成均館이 狹窄하고 陋醜하다고 하면서 王에게 重建할 것을 建議함(志28選舉2學校).</li> <li>7월 國子祭酒 安于器가 升補試를 주관하여 崔凝 등 150인을 선발함(志28選舉2升補試).</li> </ul>
1303년(충렬왕 29)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閏5월 21일(무인) 國學學正 金文鼎이 孔子와 十哲의 像과 文廟祭器를 가지고 元에서 돌아옴. 이는 贊成事 安珣이 元에 覲見하여 求得하여 오게 한 것임(世家32·列傳18安珣).<sup>20)</sup></li> <li>이때 密直副使致仕 李愐·典法判書 李瑛을 추천하여 經史教授都監使로 삼게 함(列傳18安珣).</li> <li>이 시기에 安珣이 國學과 學校[庠序]를 수리하고 李晟·秋適·崔元沖 등을 起用하여 經書의 教授로 삼아 禁學·內侍·五軍·三軍의 7品이하로부터 內外生員에 이르기까지 學習하게 함. 또 故郎中 俞成의 아들로 서 史記와 漢書에 능한 僧侶 某를 泗州에서 京師로 招聘하여 尹莘傑·金承印·徐諱·金元軾·朴理 등을 보내 講說을 듣게 하자, 선비의 무리 [薦紳之徒]가 通經博古를 중히 여김(樸翁稗說前集2).</li> <li>8월 元의 斷事官 帖木兒不花·學士 李某(李天英)가 贊成事 柳庇(柳清臣)와 함께 元으로 돌아가자 贊成事 安珣이 郊外에서 餞送함(節要22/史125吳潛).</li> <li>11월 19일(임신) 安珣이 都僉議侍郎贊成事·版圖司事에 임명됨(世家32).</li> </ul>
1304년(충렬왕 3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30일(임오) 아들 于器가 正獻大夫·右副承旨에 임명되고, 같은 해에 右承旨로 昇進함(世家32/安于器墓誌銘).</li> </ul>

16) 안향이 정동행성 좌우사 원외랑에 임명된 해는 『회헌선생실기』 3, 연보에 의거하였다.  
 17) 『고려사』 열전18, 安珣에는 副密直司事로 되어 있다.  
 18) 『회헌선생실기』 3, 연보에 의하면 이해의 8월에 匡靖大夫·贊成事に 승진하였다가 吳禔·石天補 등의 誣告에 의해 壁上三韓三重大臣·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提修國

시 기	연 령	행 적
1304년(충렬왕 3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28일(기묘) 贊成事 安珦이 建議하여 國學에 瞻學錢을 設置함(世家32). 이때 安珦이 各品으로 하여금 差等이 있게 銀과 布를 내게 하여 國學的 瞻學錢으로 充當하니 王도 內庫의 錢穀을 내어 이를 보조함. 安珦이 남은 돈을 江南에 보내 六經·諸子·史書를 사가지고 오게 하니 學問을 志願하는 선비와 七管·12徒의 諸生으로 受業하는 자가 數百名에 달하였음(志28選學2學校·列傳18安珦).</li> <li>• 6월 4일(을유) 國學的 大成殿이 完工됨(世家32).</li> <li>• 7월 29일(기묘) 中國 江南僧 鐵山紹瓊이 오자 承旨 安于器를 보내 郊外에서 맞이하게 함(世家32).</li> </ul>
1305년(충렬왕 31)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22일(무진) 右承旨 于器가 國子監試를 주관하여 李文彦 등 73人を 선발함(世家32·志28選學2國子監試).</li> <li>• 6월 26일(신축) 아들 于器가 奉翊大夫·密直副使·文學司學承旨에 임명됨(世家32/安于器墓誌銘).</li> <li>• 이해에 다시 僉議中贊으로 致仕함(列傳18安珦).<sup>21)</sup></li> </ul>
1306년(충렬왕 32)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을[秋]에 修文殿大學士 安珦·前知密直司事 許評(許珙의 子)·瑞原郡夫人 廉氏(안향의 後妻)·安州郡夫人 康氏(許評의 妻)<sup>22)</sup> 등이 發願한 「受菩薩戒法」의 序文을 鐵山紹瓊이 지음(受菩薩戒法序文).<sup>23)</sup></li> <li>• 9월 17일(갑신) 都僉議中贊致仕 安珦이 別世함(64歲)(世家32·列傳18安珦). 諡號를 文成으로 下賜받았고, 葬事를 지낼 때 七管·12徒의 諸生이 흰옷을 입고 路祭를 올림(列傳18安珦). 墓所는 長湍縣 서쪽 15리의 松林縣 大德山 口井里에 위치함(新增東國輿地勝覽12長湍都護府陵墓/宣祖實錄166, 36년 9월 9일/實記3年譜).</li> </ul>
1311년(충선왕 3)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21일(임술) 權準을 知密直司事로 任命함(世家34). 이후 國監都監에 命하여 銀 50斤으로 (故)僉議中贊 安珦의 집을 구매하여 權準에게 下賜함(列傳20權準).</li> </ul>

史로 致仕하였다가 다시 贊成事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 19) 『회현선생실기』 3, 연보에 의하면 이때 헌납한 토지로 順興府의 田 30結이 있었다고 한다. 안향의 저택은 조선초기까지 姜邯贊·李穡·韓脩 등의 저택과 함께 개성부 良醞洞에 있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5, 개성부하, 고적).
- 20) 國學學正 金文鼎은 『고려사』 105, 열전18, 安珦에는 博士로 되어 있다.
- 21) 『고려사』 열전18, 안향에는 충렬왕 32년(1306)에 치사하였다고 되어 있고, 『회현선생실기』 3, 연보에는 『고려사』 世家와 家乘에 의거하여 1304년(충렬왕 30)에 判密直司事·都僉議中贊으로 치사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록인 『東人之文五七』 安珦에는 ‘大德乙巳以僉議中贊致仕’로 되어 있음으로 이를 取信하였다. 『고려사』 열전에 기록된 연대는 조선초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시대의 卽位年稱元法을 踰年稱元法으로 바꾸면서 착오가 있으며, 또 『회현선생실기』는 후대에 편찬되어 보다 면밀한 고증이 요청된다.

시 기	연 령	행 적
1313년(충선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21일(신해) 아들 于器가 密直副使에 임명됨(世家34).</li> </ul>
1314년(충숙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월 江浙行省 杭州路 高麗慧因寺의 住持 慧福이 朝列大夫·翰林院直學士 閔漬가 撰하고, 重大匡·上洛君 金恂이 쓴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를 立石함. 이의 내용은 僉議贊成事 元瓘(元傳의 子)이 일찍이 僉議中贊 安珣과 함께 大藏經 1部를 印出하여 江浙行省 慶元路 鄞縣에 위치한 四明山 天童寺에 奉安하였으나, 뜻에 차지 않아 다시 1部를 印出하여 李孝道·高口才를 보내와 慧因寺에 奉安한 事實을 記述한 것임(玉峯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6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7高麗國相元公置田碑).</li> <li>6월 8일(庚寅) 贊成事 權溥·商議會議都監事 李瑱·三司使 權漢功·評理 趙簡·知密直司事 安于器 등이 成均館에 모여 새로 구입한 書籍들을 考閱함. 이보다 먼저 征東行省 儒學提學司가<sup>24)</sup> 博士 柳衍·學諭 俞迪을 江南에 보내 書籍을 구입하게 하였는데 배가 破船되어 柳衍 등이 赤身으로 海岸에 오르니, 判典校寺事 洪淪이 太子府參軍으로 南京에 있다가 寶鈔 150錠을 주어 經籍 1萬8百卷을 求得하여 돌아가게 한 것임(世家34/節要24).<sup>25)</sup></li> </ul>
1315년(충숙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12일(신유) 考試官 李瑱·同考試官 尹奕이 進士를 선발하자, 朴仁幹 등 33인에게 及第를 下賜함(世家34·志27選舉1). 이때 安珣의 孫 安牧이 及第함(東人之文五七安珣).</li> </ul>
1316년(충숙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9일(신해) 元에서 上王(忠宣王)이 仁宗에게 瀋王位를 世子 朮에게 전위할 것을 奏請하자 高麗王世子(實際는 瀋王世子임) 朮를 開府儀同三司·瀋王으로 除授함. 이후 忠宣王은 스스로를 太尉王이라고 칭함(元史25·109諸公主表/世家34·列傳4忠烈王江陽公滋·表2年表2/節要24).</li> <li>3월 16일(무오) 密直副使兼大司憲 安于器를 罷免하고 元尹 趙延壽(趙詡, 趙仁規의 3子)로 代身함. 이때 趙延壽는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고, 안우기는 公望은 있었으나 內援이 없었으므로 識者가 이를 哀惜하게 여겼음(世家34·列傳18安于器·趙詡).</li> </ul>

- 22) 安州郡夫人 康氏가 許評(후일 許嵩으로 改名)의 夫人이라면 後妻에 해당되는데, 이는 許評의 父인 「許珙墓誌銘」과 子인 「許琮墓誌銘」(金龍善, 위의 책, 소수)에 의하면 許評의 母인 贊成事·上將軍 廉某의 女로 되어 있다.
- 23) 이는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p.72~73에 소개되어 있다.
- 24) 『고려사』에는 成均提學司로 되어 있으나 당시 成均館에는 提學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征東行省 예하의 儒學提學司의 잘못이다.
- 25) 이 시기에 江浙行省 吳縣인 龔璠·張淵 등이 江南의 揚州지역에서 儒敎관련 서적을 印出하여 귀국하는 參軍 洪子深에게 詩文을 贈呈하였는데, 洪子深은 洪淪의 號나 字일 가능성이 있다(『存悔齋稿』, 藩邸洪子深參軍得旨

시 기	연 령	행 적
1318년(충숙왕 5)		• 2월 王命에 의해 高麗國儒學提舉·都僉議中贊·修文殿太學士 安珦의 影幀이 제작되어 文廟에 奉安되고, □□散郎·興州守 崔琳에 의해 1本이 模寫되어 興州鄕校에 봉안됨(紹修書院所藏安珦影幀贊).
1319년(충숙왕 6)		• 6월 안향을 文廟에 從祀함. 이보다 먼저 이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或者가 ‘안향이 비록 建議하여 瞻學錢을 두었으나 어찌 가히 이로써 從祀하겠는가’ 하니 門生 辛藏이 힘써 청하여 마침내 從祀되었음(節要24/列傳18安珦).
가족 사항		• 母는 禮賓丞 禹成允(剛州人)의 女, 前婦人은 右司諫 金祿延의 딸로 漢南郡夫人에, 後婦人은 禮賓卿 廉守藏의 딸로 瑞原郡夫人에 冊封됨. 소생은 1남(檢校僉議贊成事 于器) 5녀(壻 知開城府事 文項·判典客寺事 許綬·通文署錄事 朴瑋·直史館 韓守延·贊成事 金士元)(實記3年譜). <sup>26)</sup>

〈표 1〉 安珦의 生涯

\* 典據 : 世家 → 『고려사』 세가, 列傳 → 『고려사』 열전, 節要 → 『고려사절요』, 實記 → 『晦軒先生實記』.

### III. 행적의 검토

앞에서 정리한 안향의 주요 생애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행적에 나타난 주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 1. 친족집단

안향의 본관이며 출신지인 慶尙道 興州(順興)는 소백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구려의 及伐山郡으로 신라 경덕왕대에 崑山郡으로 改名되었다. 고려 초에 흥주로 바뀌었고, 1018년(현종 9) 안동부의 관할이 되었다가 다시 順

江南印儒書歸國 次韻張清夫所贈 以贈之, 贈洪子 溱參軍瀋王處購書奉旨乘驛).

26) 安珦은 1334년(元統 2, 충숙왕 복3) 11월의 開城府 西部 香川 11里의 淮戶口에 의하면 金稹(金士元의 子)의 外祖로서 官職이 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郎中·儒學提舉·匡靖大夫·僉議中贊으로 되어 있다(노명호 등편, 『한국고대중세교문서연구』상, 서울대출판부, 2000, pp.201~209, 金稹淮戶口).

安縣(榮州)에 이관되었다가 1172년(명종 2) 監務가 설치되었다. 원 압제하인 1274년(충렬왕 즉위년) 충렬왕의 胎를 이곳에 봉안하면서 興寧縣令官으로 승격되었고, 이어서 1313년(충숙왕 즉위년) 충숙왕의 태를 봉안하면서 知興州事로, 1348년(충목왕 4) 충목왕의 태를 봉안하면서 順興府로 각각 승격되었다. 이곳의 土姓은 安·李·申·尹 등의 4姓이며, 村姓은 石, 來姓은 金·鄭, 續姓은 金(慶州·光州)·尹(酒泉)이며, 土質은 메마르고 기후는 따뜻하였다고 한다.<sup>27)</sup>

안향의 선조인 順興安氏는 이곳의 邑司를 장악했던 戶長家門으로 원 압제기에 安珣·安軸의 兩家가 차례로 上京從士하여 신홍사대부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두가문의 성장은 고려가 대원몽고국의 정치적 지배질서 안에 들어가면서 투르카[禿魯花]·制科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朱熹의 성리학을 도입하게 되어 고려의 문풍 진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의 가계는 『고려사』 열전18 안향, 열전19 안축, 『謹齋集』 3 安于器墓誌銘, 권4 順興安氏世系圖, 『稼亭集』 1 安軸墓誌銘, 『牧隱文藁』 19, 安輔墓誌銘 등을 통해 알 수 있다.<sup>28)</sup>

이들 자료에서 제시된 順興安氏의 시조인 安子美는 永儒, 永麟, 永和 등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가족 사항을 玄孫까지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子 ① 永儒 → ② 孚(興州吏, 醫業出身, 密直副使致仕) → ③ 珣(製述業, 僉議贊成事 歷任, 僉議中贊致仕) → ④ 于器(製述業, 知密直司事 歷任, 檢校

27) 『고려사』 지11, 지리2, 安東府 興州; 『세종실록지리지』 150, 순흥도호부.

28) 이들의 간략한 世系圖는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p.80에 정리되어 있다. 이에서 『謹齋集』 4, 附錄 順興安氏世系圖가 있다고 하였는데, 『謹齋集』이 수록되어 있는 『고려명현집』 2, 대동문화연구원, 1973; 『한국문집총간』 2, 민족문화추진회, 1990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李樹健 교수의 업적에 의거하였다.

- 僉議贊成事致仕) → ⑤ 牧(製述業, 密直副使 歷任, 順興君 冊封).
- 2子 ① 永獮(別將) → ② 貞俊 → ③ 成哲 → ④ 守堅·文凱 → ⑤ 千善.
- 3子 ① 永和 → ② 得財(戶長) → ③ 希諤(戶長) → ④ 碩(縣吏, 登第, 不仕)  
→ ⑤ 軸(製述業, 制科, 僉議贊成事 歷任, 興寧君 冊封).  
    輔(製述業, 制科, 政堂文學 歷任).  
    輯(製述業).

이들의 세 가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은 첫째 아들 永儒의 가계로서 孚가 興州吏로서 醫業을 통해 진출하여 密直副使에 이르러 致仕하였고, 그의 아들 珣이 재술업에 급제하여 재상의 지위에 이르러 지배층의 가문에 편입되었다. 그 이하의 두 가문에서 族姪 安碩과 그의 아들 安軸(1282~1348)·安輔(1302~1357) 등은 안향이 현달한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기에<sup>29)</sup> 안향의 官人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또 안향의 外祖는 禮賓丞 禹成允(剛州人), 前妻 金氏(漢南郡夫人)의 父는 右司諫 金祿延,<sup>30)</sup> 後妻 廉氏(瑞原郡夫人)의 父는 禮賓卿 廉守藏(?~1265, 政堂文學 廉信若의 孫, 工部侍郎 廉克髦의 子)으로<sup>31)</sup> 이들 가문은 증견관료

29) 安軸은 1307년(충렬왕 33)에(『稼亭集』 1, 安軸墓誌銘), 安輔는 1320년(충숙왕 7)에 각각 禮部試에 급제하였고(『목은문고』 19, 安輔墓誌銘), 安輯의 급제연대는 알 수 없다.

30) 金祿延은 1258년(고종 45) 5월 경상도안찰사에 임명된 형부원외랑 金祿延으로 추측되는데(『고려사』 세가24, 고종 45년 5월 임술), 그는 1264년(원종 5) 4월 禮賓卿으로 몽고에 파견되었고, 1269년(원종 10) 12월 우간의대부에 임명되었다(『고려사』 세가26, 원종 5년 4월 을묘, 10년 12월 갑신). 그의 外孫인 安于器의 墓誌銘에는 최종관직이 判將作監事로 되어 있다.

31) 「廉守藏墓誌銘」(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006 소수)에 의하면 長女는 元傳(1220~1287)에게, 次女는 海陽府錄事 崔某에게 出嫁하였다고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海陽府錄事 崔某를 崔冲若으로 보는 견해(金龍善, 위의 책, 역주편하, p.1177)에 따르면 안향의 後妻 廉氏는 최충약이 죽은 후 안향에게 改嫁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향이 廉氏와 再婚한 시기가 아들 于器가 혼인한 시기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그의 재혼과 于器의 혼인의 성격을 달리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廉守藏의 父인 「廉克髦墓誌銘」에 의하면 廉克髦의 최종관직은 尙書戶部侍郎으로 되어 있고, 그의 3男 1女 중 두 아들은 일찍 죽고 막내아들 廉珣가 禮部試에 좋은 성적으

를 배출한 가문으로 추측되지만, 2人 모두 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들 于器의 丈人은 典籤 崔冲若인데, 崔冲若은 秘書郎으로 金俊의 집권기에 海陽府錄事に 임명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大將軍 吳壽山에게 毆打당한 후 병이 들어 죽었으므로<sup>32)</sup> 가문은 이렇다 할 위치에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안향은 州吏에서 雜業을 통해 起家한 가문의 출신으로 친인척의 후원을 통해 성장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대원몽고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변동기에 오직 자신의 문헌적인 능력에 의해 현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2. 관료 생활

안향은 1260년 參知政事 李藏用과 同知樞密院事 柳璈의 문하에서 魏文卿(魏文凱, 魏文愷, 壯元)·金暉(乙科 第3人)·李尊庇 등과 함께 급제한 후 校書郎에 임명되었다가 直翰林院을 거쳐 국왕의 측근 비서직인 內侍에 임명되었다. 1271년(원종 12)에 西道에 使臣으로 파견되어[奉使] 청렴하다는 평을 들어 다시 內侍院에 들어가서 내시원의 숙폐를 上奏하고 혁파하다가 다음해에 監察御史에 임명되었다. 1275년(충렬왕 1) 尙州判官에 임명되어 이후 3년간 재직하면서 妖神을 받들고 郡縣을 橫行하며 官民을 현혹시키던 女巫 3人을 치죄하기도 하였고, 일본원정을 위한 전함 건조·군량저축, 王命[宣傳消息]·鷹坊에 의한 稅金徵收 등에 의해 곤경에 처한 인민의 蘇生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의 청렴함을 褒彰받아 版圖佐郎에 임명되고 이어서 殿中侍史에 발탁되었다.

로 급제하였다고 한다. 廉瑒는 1215년(고종 2) 5월 예부시에서 壯元으로 급제하였는데(『고려사』 지27, 선거1 選場), 후일 廉守藏으로 改名했을 가능성이 있다.  
32) 『고려사』 열전18, 兪千遇.

1279년(충렬왕 5) 大元蒙古國에 파견되는 투르카[禿魯花]에 선발되어 國子司業으로 승진하였고, 귀국 후에 右司議大夫에 임명되었다가 1288년(충렬왕 14) 左副承旨에 발탁되었고, 同知貢擧가 되기도 하였다. 1289년(충렬왕 15) 元 世祖에 의해 征東行中書省 左右司 員外郎으로 임명되었고 이어서 郎中으로 昇進되었다가 征東行省 儒學提擧司 提擧에 임명되었다. 1294년(충렬왕 20) 同知密直司事로서 東南道兵馬使(合浦鎮邊萬戶?)에 임명되어 合浦에 出鎮하였고, 같은 해에 知貢擧가 되었다. 이어서 知密直司事·密直司使·三司左使를 거쳐 1297년(충렬왕 23)에 55세로 僉議參理·世子貳保에 임명되어 眞宰가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 즉위년) 관제를 개편할 때 參知機務·行東京留守·集賢殿大學士·雞林府尹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에 다시 관제를 고칠 때 僉議參理·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에 임명되었다. 1300년(충렬왕 26) 58세로 副宰相인 都僉議贊成事에 임명되었으나 政權을 잡은 者[用事者]의 미움을 받아 僉議中贊으로 致仕하게 되었지만 곧 찬성사로 복직하였다가 1305년(충렬왕 31) 63세로 첨의중찬으로 치사하였고, 다음해에 別세하였다(64歲).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안향이 1300년 일시 치사했을 때에 政權을 잡아 擅斷했던 者[用事者]로 지목될 수 있는 인물로서 고려인은 찾아지지 않는다. 당시 원의 고려에 대한 강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征東行中書省의 宰相職이 增置되었는데,<sup>33)</sup> 이때 파견되어 온 蒙古人 출신으로 고려의 奴婢法을 위시하여 각종 制度를 變改하려고 하였던 征東行中書省 平章政事 闍里吉思(Georgius)가 재직(1299. 10. 17 赴任~1301. 3. 2 歸還)하고 있었던 점을 보아 그 일 가능성이 높다.<sup>34)</sup>

33) 장동익, 「征東行省의 研究」, 『동방학지』 67, 1990 : 『고려후기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소수.

34) 이해의 8월 16일(戊午) 上洛公 金方慶이 別世하였는데(89세), 그가 別세한 10여일이 내에 文翰學士 李瑱에 의해 만들어진 묘지명에는 家系 및 子女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

이러한 안향의 歷官을 정리하면 하급 관료일 때는 비서성·한림원 등과 같은 문한관서를 거쳐 국왕의 측근직인 내시원에 들어갔다가 감찰어사를 거쳐 외직인 尙州判官에 임명되었다. 이후 어사대·중서문하성 등에서 중견관료로 활약하다가 국왕의 측근직인 승지에 임명되었고, 원과의 관계가 긴밀히 전개되는 가운데서 정동행성의 원외랑·낭중·유학제거 등의 요직을 겸직하다가 同年들보다 빨리 재상에 임명되었다.<sup>35)</sup> 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견관료일 때 管理職인 外官과 尙書6部의 관직을 역임하지 않고,<sup>36)</sup> 주로 중서문하성·정동행성 등의 최고정책결정기관에 재직하였다는 점이다. 또 급제자 출신의 가장 영예직인 동지공거·지공거가 되어 2차에 걸쳐 과거를 주관하였으며, 재상으로 史館을 겸직하여 문필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재상의 직위에 오른 1294년(충렬왕 20) 이후 국왕 측근세력들의 정권장악으로 인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sup>37)</sup>

지만, 그의 업적과 경력은 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宗主國인 元과 관계된 내용은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시기에 征東行省官이 증치되어 平章政事로 임명되어 온 闍里吉思의 擅權에 의해 고려의 朝野가 숨죽이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張東翼, 『金方慶의 生涯와 行蹟』, 『退溪學과 韓國文化』 40, 2007).

- 35) 안향과 같은 해에 급제한 乙科壯元 魏文卿(魏文凱, 魏文愷, ?~1277?)은 1244년(고종 31) 4월 禮部試에서 壯元及第한 후 安東(永嘉)書記를 거쳐 日本에 다녀온 후 出家한 沖止(魏珣, 魏元凱)의(『圓鑑國師寶明塔碑』) 弟로서, 國子博士·正郎·安西守 등을 역임하였다(『海東曹溪玄庵和尚雜著』, 『寄大朝遼東路按察副使洪公革書』. 金珙(乙科 第3人)은 1295년(충렬왕 21) 密直學士에 임명되었고(62세), 다음해에 政堂文學에 임명되어 眞宰가 되었다가 1298년(충렬왕 24) 退職하였다(『金珙墓誌銘』: 金龍善, 앞의 책, 2006 소수). 또 李尊庇는 1279년(충렬왕 5) 밀직부사에 임명되었고(47세), 1287년(충렬왕 13)에 判密直司事로 別世하였다(55세)(『李尊庇墓誌銘』).
- 36) 안향이 상주관관을 제외하고 外職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文翰官으로서 蒙古와 관련된 외교문서의 작성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무신집권 이래 문한관의 경우 외직에 임명되지 않았고, 또 조선시대에 외교문서를 담당한 承文院의 관원 중 吏文·漢文·寫字를 익힌 官僚은 外職에 補任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성종실록』 12, 2년 10월 28일, 권15, 3년 2월 2일).
- 37) 충렬왕대에 이루어진 측근정치에 대한 연구로 李益柱,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1988; 邊銀淑,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세력의 형성배경」, 『명지사론』 11·12합, 2000이 있다.

그의 관료로서의 자세는 西道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의 청렴·內侍院의 숙폐 제거·상주판관 때의 妖巫治罪와 청렴 등을 통해 볼 때 청렴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의 열전에 ‘安珣은 莊重하고 安詳하니 사람들이 다 畏敬하였다. 相府에 있을 때 謀事와 判斷을 잘 하여 同列이 順應하였으며, 자신은 오직 삼가 하여 감히 다투지 않았다(珣 莊重安詳 人皆畏敬 在相府 能謀善斷 同列順承 惟謹不敢爭)’는 평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 3. 경제적 기반

안향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당대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고, 후대에 안향이 國學의 중건 및 섬학전의 설치과정에서 자신의 저택을 국가에 기증하고 성균관에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였던 사실을 통해 풍족한 형편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곧 『회헌선생실기』에 의하면 1301년(충렬왕 27) 국학을 중건할 때 안향이 자신의 邸宅을 국가에 바치고 西部 良醴洞으로 移住하였고, 토지와 남녀 노비 각 100인을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하며, 이때 바친 토지가 順興府에 田 30結이 있었다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당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1469년(예종 1) 2월 禮曹가 성균관의 牒呈에 의거하여 ‘성균관의 노비는 안향이 국가에 바친 자신의 노비입니다’라고 上言한 것에서<sup>38)</sup> 확인된다.

또 조선전기에 안향의 후손들이 성균관에 입학하였을 때 이에 소속되어 있었던 노비들이 ‘우리의 上典이다’라고 하였다던가, 성균관의 관원들이 타 학생들보다 달리 대우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일면을 엿볼 수 있다.<sup>39)</sup> 이

38) 『예종실록』 3, 1년 2월 13일. 이는 1476년(성종 7) 5월 經筵에서 이루어진 都承旨 玄碩圭의 上言에서도 확인된다(『성종실록』 67, 7년 5월 15일).

39) 『청과극담』.

점은 그가 지공거를 맡았을 때 급제자 30여인 모두에게 돈피이불(貂皮衾)을 선물하고 음식의 대접에서 萬縷銀盞을 사용하였을 정도로 豪富하였다고 한다.<sup>40)</sup> 이 점은 후일 풍기군수 周世鵬이 안향의 옛집 터에 祠宇를 건립할 때 땅을 파다가 銅器 3百餘斤을 획득하였다고<sup>41)</sup> 하는 점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sup>42)</sup>

이와 같은 안향의 경제적 기반은 그의 先代가 興州의 戶長으로서 邑吏田을 바탕으로 土地를 확대하여 富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 쭈가 密直副使로 致仕하였기에 宰相家로서 科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前妻 漢南郡夫人 金氏의 父인 右司諫 金祿延이 1258년(고종 45) 5월 公公然하게 請謁을 행하던 慶尙州道按察使 李洪靖을 代身하여 안찰사에 임명되었으나 苛斂誅求한 점[掊克]이 李洪靖보다 倍나 되었다고 한 점<sup>43)</sup> 보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이다.<sup>44)</sup> 이러한 金祿延의 재산의 일부가 漢南郡夫人 金氏에게 상속되어 안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부유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안향이 불교계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사례도 찾아진다. 곧 그가 별세하기 직전인 1306년(충렬왕 32) 가을에 前知密直司事 許評(許珙의 子)·瑞原郡夫人 廉氏(안향의 後妻)·安州郡夫人 康氏(許評의 妻)<sup>45)</sup> 등과 함께 「受菩薩戒法」을 발원하기도 하였다. 또 이보다 먼저 僉議贊成事 元瓘과 함께 대장경 1부를 印行하여 元의 사찰에도

40) 『용재총화』 7.

41) 『중종실록』 95, 36년 5월 22일.

42) 안향의 후예들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검토로 朴京安, 「麗末鮮初 順興安氏家の 坡州農莊에 관하여」, 『경기향토사학』 5, 2000이 있다.

43) 『고려사』 세가24, 고종 45년 5월 임술.

44) 『慶尙道營主題名記』에 의하면 1257년(고종 44) 秋冬等按察使는 李某로서 1258년 春夏等에 계속 在職하였고(仍番), 1258년의 秋冬等은 金某로서 다음해의 春夏等에 계속 재직하였는데, 李某는 李洪靖, 金某는 金祿延일 것이다.

45) 許評(후일 許嵩으로 改名)의 夫人인 安州郡夫人 康氏는 贊成事·上將軍 廉某의 女이다(金龍善, 위의 책, pp.403~405, 「許珙墓誌銘」).

기진한 예도 찾아지고 있는데, 이는 1314년에 만들어진 江浙行省 杭州路 高麗慧因寺에 立石된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의 내용은 僉議贊成事 元瓘(元傳의 子)이<sup>46)</sup> 일찍이 僉議中贊 安珣과 함께 大藏經 1部를 印出하여 江浙行省 慶元路 鄞縣에 위치한 四明山 天童寺에 봉안하였으나, 뜻에 차지 않아 다시 1部를 인출하여 李孝道·高□才를 보내와 慧因寺에 봉안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sup>47)</sup> 이를 통해 볼 때 안향도 불교에 대해 일정한 信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그의 後妻 廉氏의 가문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sup>48)</sup>

성리학자를 자처한 안향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유학자들에게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기에 당시의 國學大司成이었던 李混도 『禪門寶藏錄』의 跋文을 짓기도 하였다.<sup>49)</sup> 이러한 안향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후계자들인 이제현·이곡·이색 등에게도 나타나 조선초기의 성리학자들로부터 성리학에 대한 純粹性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up>50)</sup>

46) 元瓘은 初名은 元貞으로 禮賓卿 廉守藏의 外孫이고(「廉守藏墓誌銘」·「元瓘墓誌銘」), 안향의 後妻가 廉守藏의 2女이기에 안향의 妻姪에 해당된다.

47) 『玉岑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 6, 高麗國僉議贊成事元公捨大藏經記, 권7, 高麗國相元公置田碑. 이는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pp.173~178에 인용되어 있다.

48) 安珣의 後妻 廉氏의 叔行으로 추측되는 廉承益은 충렬왕의 寵臣으로 好佛로서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고려사』 열전36, 廉承益). 廉氏가 廉承益의 姪女로 추측되는 事由는 廉承益의 兄이 廉守貞(고종 34년 十韻詩로 국자감시에 합격)임을 보아(『고려사』 세가 29, 충렬왕 10년 9월 기해), 廉守藏은 廉守貞과 同行列의 兄弟였을 것이다.

49) 『禪門寶藏錄』下, 跋文(『大正新脩大藏經』所收).

50) 이 점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들에게 주자 성리학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던 강남의 유학자로서 이론적·철학적 窮理의 측면을 강조하였던 吳澄에도 그러한 면이 보이고 있다. 곧 그의 문집에 는 성리학 관계 서적의 敍·序·跋 뿐만 아니라 老莊·醫術·陰陽·運氣·雷壇 등 여러 방면에 관한 序文이 수록되어 있고, 道觀 및 寺院의 建立 重修記, 藏經記 등도 수록되어 있다. 또 道士·醫士·陶工·相士·地師·僧侶·術士 등과 교류하면서 詩文이나 序를 써 주기도 하였다. 이 점은 그의 성리학적 실천에 있어서 異端的인 성격이 크게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 4. 학문적인 자세

안향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였다고 하며 급제 후에 비서성·한림원 등의 문한기관에 임명되었던 것을 보면 학문적인 역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견관료 때에 國子司業으로서 생도를 훈육하는 위치에 있었고 투르카(禿魯花)를 거느리고 원에 파견된 점, 元 世祖에 의해 王京等處儒學提舉로 임명된 점, 재상의 시기에는 集賢殿大學士·修文殿大學士·修國史·監修國史 등의 文翰職을 겸직하고 있었던 점을 통해 볼 때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학문적인 수준이나 문한적인 능력을 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의 역관과정에서 宮中の 宴會에서 시문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가니(충렬왕 14), 시문을 바쳐 米 50石을 하사받았다는 것(충렬왕 19)을 통해 볼 때 시문에 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그의 시문은 『東人之文五七』에 「甲午秋自鎮邊歸道 次京山府 示太守李東庵」<sup>51)</sup> 위시하여 6수만 남아 있다.<sup>52)</sup> 이들 6首의 시문을 통해 안향의 문필적인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의 열전에 '문장은 청경하고 불만하다(章淸勁可觀)'는 평을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의 학문에 대한 자세는 '항상 興學養賢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비록 일을 사양하고 집에 있어도 일찍이 마음에 잊지 않았다(常以興學養賢 爲己任 雖謝事家居 未嘗忘于懷)'는 점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1301년(충렬왕 27) 첨의찬성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邸宅을 국가에 바치고, 토지와 남녀 노비 각 100인을 국학에 귀속시킨 것, 1303년 國學學正 金文鼎을 元에 파견하여

그의 성향에 대해 조선왕조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李滉은 吳澄에게는 불교적 성격의 伊蒲塞(優波塞)의 氣가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混定編錄』 9). 이상은 장동익, 『고려후기외교사연구』, 일조각, 1994, p.229에 의거하였다.

51) 이는 『동문선』 14, 칠언율시에도 수록되어 있다.

52) 이들 시문은 『회헌선생실기』 1에 수습되어 있다.

孔子와 十哲의 像과 文廟祭器를 구득하여 오게 하고, 密直副使致仕 李愴·典法判書 李瑱을 추천하여 經史教授都監使로 삼게 한 것, 1304년 各品으로 하여금 차등이 있게 銀과 布를 내게 하여 국학의 瞻學錢으로 충당하게 하고 六經·諸子·史書를 중국의 강남에서 구매해 오게 한 것 등의 사례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학문진흥을 위한 노력은 사후에 '도덕이 높고 견문이 넓음[道德博聞]이 문(文)이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선정을 베푸는 것[安民立政]이 성(成)이라는'<sup>53)</sup> '文成'이라는 시호를 하사받게 되었을 것이다.

## 5. 성리학의 도입

안향이 처음으로 朱熹의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을 고려에 도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긍정·부정의 두 입장이 있어 왔다. 최근에는 1290년(충렬왕 16) 3월 24일(정묘) 충렬왕·왕비·세자가 원에서 돌아올 때 함께 귀국한 안향이 원의 大都에서 朱子書를 筆寫하고 孔子·朱子의 肖像畫를 模寫하여 돌아왔다는 『회현선생실기』 3, 年譜의 내용이 윤색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sup>54)</sup> 그렇지만 『회현선생실기』 3, 年보의 내용이 時期의 整理[繫年]에서 실패했을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향이 1279년(충렬왕 5) 투르카(禿魯花)로 원에 들어가 1년 정도 滯在하였던 점, 1289년(충렬왕 15)·1298년(충렬왕 24)의 2차에 걸쳐 충렬왕과 충선왕을 수종하여 원에 들어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에 원에서 성리학의 서적을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점은 그의 열전에 '晩년에 항상 朱熹[晦庵先生]의 眞影을 걸어두고 景慕하였으며 드디어 號를 晦軒이라고 하였다(晩年常掛晦庵先生眞 以致景慕 遂號晦軒)'고 한 점을 보아 朱熹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려고

53) 이는 『회현선생실기』 3, 年보에 의거하였다.

54) 森平雅彦, 「朱子學の高麗傳來と對元關係—安珣朱子學書將來說の再檢討」, 『史淵』 143, 2006.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sup>55)</sup>

그리고 안향(1243~1306)이 1304년(충렬왕 30) 5월 國學에 瞻學錢을 設置하고 남은 돈(餘費)을 중국 강남에 보내 六經·諸子·史書를 사가지고 오게 하였다고 하였는데,<sup>56)</sup> 이들 서적 중에는 남송대의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고려에 성리학을 수입한 또 한 사람의 주역인 白頤正(1247~1323, 金方慶의 孫婿, 金恂의 婿)이 1298년(충렬왕 24) 8월 이후 충선왕을 수종하여 大都에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 체재하다가 1308년(충렬왕 34) 8월 26일(임자)<sup>57)</sup> 이후에 귀국하였던 것보다 4년 전의 일이었다. 백이정은 일찍이 權溥(1262~1346)·禹倬(1263~1342) 등과 함께 안향의 門下에 從遊하면서 학문을 닦고(講磨訓誨) 性理之學을 自任하였다고 한다. 이때 고려는 삼별초의 반란·일본원정 등으로 인해(時國家 伐叛問罪 二十年矣) 文風이 크게 쇠퇴하였으나, 안향이 문묘(聖廟)를 수리하여 孔子를 尊崇하자 諸賢의 道理가 행해졌고(晦軒公葺聖廟 宗孔氏 於是門行諸賢) 홀로 학문의 연구에 전념하여(獨以通經博古爲事) 佛敎의 弊習을 씻어내게 되었다고(以洗蔥嶺之陋) 한다.<sup>58)</sup>

白頤正은 1284년(충렬왕 10)에 禮部試에 급제한 후<sup>59)</sup> 1298년(충렬왕 24) 8월 이후 안향과 함께 충선왕을 수종하여 大都에 들어가서 10餘年에 걸쳐 체재하다가 안향이 별세한 2년 후인 1308년(충렬왕 34) 8월 이후에 귀국하였다. 이때 백이정은 程朱全書를 많이 획득하여 돌아와 同門 4~5人과 날마다 서로 講授하여 經籍의 淵海가 되고 箋疏의 案內者(梯航)이 되자 동방

55) 이러한 그의 역할을 감안하여 權近은 '儒道을 일으켜 不朽의 功을 세우고 興儒功不休로 칭송하였다(『양촌집』 3, 送楊廣道安廉安諫議十八韻).

56) 『고려사』 志28, 選舉2, 學校·列傳18, 安珦.

57) 이 날은 충선왕이 父王의 別世를 듣고서 奔喪하기 위해 고려에 도착한 날짜이다(『고려사』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26일).

58) 『淡庵逸集』 2, 白頤正行狀.

59) 『담암일집』 2, 백이정행장; 『東人之文五七』, 白文節.

학자들이 비로소 性理之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sup>60)</sup> 이로 인해 그의 열전에 ‘때에 程朱之學이 처음 중국에 행하여 아직 동방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白頤正이 원에 있으면서 이것을 배워 동쪽으로 돌아오니 李齊賢·朴忠佐가 제일 먼저 師授하였다(時程朱之學 始行中國 未及東方 頤正在元 得而學之 東還 李齊賢·朴忠佐首先師受)’고<sup>61)</sup> 기록되었다.

이상에서 고려에 성리학을 수입한 두 주역인 안향과 백이정의 역할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는데, 성리학의 수용에서 누구의 역할이 더 컸는가하는 것을 판가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안향의 경우는 당대에 만들어진 묘지나 행장이 전해지지 않은데 비해, 백이정의 경우는 그의 門下출신인 白文寶가 찬한 행장을 통해 구체적인 형편을 소상하게 알 수 있어 그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백이정의 행장을 통해서도 백이정이 안향의 훈도를 받아 성리학에 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기에 안향이 성리학의 수용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견해는 수긍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sup>62)</sup> 그러므로 남송의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이 고려에 유입된 것은 안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성리학이 고려에 수용되는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sup>63)</sup>

60) 『담암일집』 2, 백이정행장 ; 『역옹패설』 前集2.

61) 『고려사』 열전19, 白頤正.

62) 이 점은 이미 邊東明, 「性理學의 受容과 普及」, 『高麗後期 性理學受容研究』, 일조각, 1995, pp.22~28에서 명쾌히 정리되었다.

63) 그렇다고 해서 백이정이 성리학의 수용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 역시 성리학에 대한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성리학의 전수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컸다.

## 6. 문묘 종사

성리학의 도입에서 안향이 차지한 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당시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1319년(충숙왕 6) 안향을 文廟에 從祀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或者가 ‘비록 안향의 建議에 의해 瞻學錢을 설치하였으나 어찌 가히 이로써 從祀하겠는가’하니 門生 辛葦이 힘써 청하여 마침내 從祀하였다고 하는 점에서<sup>64)</sup> 유추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아들 안우기는 정계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1316년(충숙왕 3) 3월 密直副使兼大司憲으로 재직하다가 파면되고 후임으로 안향의 門生인 元尹 趙延壽(趙詡, 趙仁規의 3子)가 代身 임명되었다. 이때 趙延壽는 충선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안우기는 公望은 있었으나 內援이 없었으므로 識者가 이를 哀惜하게 여겼다고 하는 점을 보아<sup>65)</sup> 아버지의 문묘 종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안향의 從孫인 安軸도 아직 하급관료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이르지 못하였다.

안향의 문생으로는 1288년(충렬왕 14)의 同知貢舉일 때의 尹宣佐, 1294년(충렬왕 20) 知貢舉일 때의 尹安庇·李彦冲·趙延壽·辛葦·洪侑·金光軾 등이 있었다. 그중 윤선좌는 1313년(충숙왕 즉위년) 成均祭酒·司憲執義 등에 임명되었고, 다음해에 上王(忠宣王)의 명에 의해 前選部議郎 尹莘傑·前典校令 白元恒 등과 왕에게 『자치통감』을 강의하였고, 같은 해에 藝文提學이 되었으나 이후에 파직되었고 1321년(충숙왕 8)에 복직되었다.<sup>66)</sup> 그러므로 1319년(충숙왕 6) 안향이 문묘에 종사될 때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尹安庇는 초기의 역관은 불명하고 1330년(충혜왕 즉위년) 左代言에 임명되었

64) 『고려사』 열전18, 安珦.

65) 『고려사』 세가34, 충숙왕 3년 3월 16일·열전18, 安于器·趙詡.

66) 『고려사』 세가34, 충숙왕 즉위년 12월 기묘, 1년 윤3월 임신, 8월 병신; 『가정집』 12, 尹宣佐墓誌銘).

고,<sup>67)</sup> 李彦冲은 묘지명이 남아 있으나 이때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趙延壽는 안우기가 密直副使兼大司憲에 파면되고 그 뒤를 이었기에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 洪侑·金光軾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안향을 문묘에 배향할 수 있도록 한 門生 辛葢의 정치적인 위상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1314년(충숙왕 1) 윤3월 19일(임신) 上王(충선왕)에 의해 選部直郎에 임명되어 選部散郎 安珪와 함께 인사행정[銓注]을 장악하였음을<sup>68)</sup> 보아 충선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찾아지지 않으나 1326년(충숙왕 13) 判書로서 國子監試를 주관하여 李達中 등을 선발하였고,<sup>69)</sup> 1339년(충혜왕 복위년) 12월 12일(병신) 判密直司事·藝文館提學으로 별세하였다.<sup>70)</sup> 이러한 辛葢의 경력을 보아 그는 僉議府의 재상인 眞宰에는 승진하지 못했으나 文翰의 능력을 소지한 관료로서 명망을 받고 있었던 인물로 추측되며,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안향이 문묘에 배향될 수 있었을 것이다.

## 7. 현실대응의식

안향은 역관과정에서 보여준 청렴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였지만, 재상이 되어서는 '오직 삼가 하여 감히 다투지 않았'다 하는 점을 보아 원의 압제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압제와 왜곡된 고려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곧 그가 僉議參理·僉議贊成事 등의 재상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298년(충렬왕 24)

67) 『고려사』 세가36, 충혜왕 즉위년 4월 경인.

68) 『고려사』 세가34, 충숙왕 1년 윤3월 19일.

69) 『고려사』 지74, 선거2, 國子監試; 『목은문고』 15, 「李仁復墓誌銘」.

70) 『고려사』 세가36, 충혜왕 복위년 12월 12일. 그의 사위 崔宰의 묘지명에 의하면 奉翊大夫·判密直司事·藝文館提學으로 致仕하였다고 한다(『목은문고』 15, 崔宰墓誌銘).

충선왕이 퇴위 당한 이후에 국내의 정치적 분규·원의 사신과 征東行省平章政事 闕里吉思(Georgius)에 의해 단행된 각종 정치제도가 개편되고 노비제 개혁 같은 중대한 사안에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안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지배층들이 원제국의 지배체제에 순응하여 현실안주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sup>71)</sup>

안향의 이러한 의식은 1303년(충렬왕 29) 7월 이래 王의父子를 離間시키고 있던 충렬왕의 嬖臣인 知都僉議司事 吳潛·知申事 金元祥·內僚 石天補·石天卿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곧 7월 9일(乙丑) 元이 斷事官 帖木兒不花(Temur Buqa)·翰林學士 李某(李天英)를<sup>72)</sup> 보내 왔는데, 이는 元의 中書省이 成宗의 命(聖旨)을 받들어 宰相 崔有滄·韓希愈·柳庇(柳清臣) 등으로 하여금 사신과 함께 石胄와 그의 아들 天補·天卿·天珙를 체포하여 大都(燕京)으로 보내게 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sup>73)</sup> 이때 三司右尹 元冲甲 등 50人·洪子藩·尹萬庇 등 30人이 吳祁(吳潛) 등의 罪狀을 列記하여 斷事官 帖木兒不花(Temur Buqa)·學士 李某(李天英)에게 고하였고,<sup>74)</sup> 이어서 洪子藩·金瑋 등 20人, 退職[致仕]한 宰相 蔡仁揆 등 28人과 萬戶 金深 등의 軍官 150人, 退職[致仕]한 版圖判書 崔양·朴全之 등 70餘人이 연이어 같은 趣旨의 건의를 하였으나 사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의 사신 帖木兒不花·學士 李某(李天英)가 吳潛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贊成事 柳庇(柳清臣)와 함께 돌아가자 贊成事 安珣 등

71)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1994, pp.102~109.

72) 이때 翰林學士 李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같은 해 7월 23일(丙寅)에 科擧及第者의 賜宴을 보고서 '지난날[往歲] 參知政事 張某와 함께 고려에 왔을 때 보았고, 이제 또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1298년(충렬왕 24) 2월 16일(丙寅) 參知政事 張守智와 함께 파견되어 온 翰林直學士 李天英임을 알 수 있다.

73) 『고려사』 세가32, 충렬왕 29년 7월 9일; 열전38, 吳潛; 『고려사절요』 22, 충렬왕 29년 7월.

74) 『고려사』 세가32, 충렬왕 29년 7월 25일·열전18, 洪子藩·열전38, 오잠; 『고려사절요』 22, 충렬왕 29년 7월.

이 郊外에서 餞送하였다.<sup>75)</sup> 이로 인해 8월 20일(乙巳) 洪子藩·元冲甲이 여러 재상과 더불어 三軍을 거느리고 王宮을 포위하고 吳潛(吳潛)를 체포하여 護軍 崔淑千을 보내 圓에 押送한 사태가 일어났다.<sup>76)</sup>

이 사태는 臣子가 軍士를 거느리고 王宮을 포위한 중대사였는데, 이때 안향이 취했던 자세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현직 재상이었기에 적극적으로 吳潛의 非行을 圓의 사신에게 전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王宮의 포위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圓의 사신이 귀국할 때의 餞別宴에서 學士 李某(李天英)가 시문을 지어 ‘白酒는 사람의 낮을 붉게 한다(白酒紅人面)’고 하면서 안향에게 和答을 청하자 안향이 화답을 늦추자, 스스로 ‘黃金은 官吏의 마음을 검게 한다(黃金黑吏心)’으로 지어 帖木兒不花(Temur Buqa)가 吳潛의 뇌물을 받고 그 죄악을 다스리지 않았음을 풍자하였다고 한다.<sup>77)</sup> 이를 통해 볼 때 안향도 元 壓制 하에서 고려의 官人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었던 소극적인 자세와 같은 범주에서 처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왕조가 대원몽고국의 무력에 의해 압도되어 제후국으로 전락하였던 13세기의 재상 안향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조선왕조시기에 이루어진 그에 대한 송모의 실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75) 『고려사절요』 22, 충렬왕 29년 7월; 『고려사』 열전38, 吳潛.

76) 『고려사』 세가32, 충렬왕 29년 8월 20일; 열전17, 元冲甲; 열전18, 洪子藩; 열전38, 吳潛; 『吳潛墓誌銘』.

77) 『고려사』 열전38, 吳潛.

안향은 예부시에 급제한 후 문한관서를 거쳐 국왕의 측근직인 내시원에 들어갔다가 감찰어사를 거쳐 외직인 상주판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어사대·중서문하성 등에서 중견관료로 활약하다가 국왕의 측근직인 승지에 임명되었고, 원과의 관계가 긴밀히 전개되는 가운데서 정동행성의 원외랑·낭중·유학제거 등의 요직을 겸직하다가 재상에 임명되었다. 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견관료일 때 管理職인 外官과 尙書6部의 관직을 역임하지 않고 주로 중서문하성·정동행성 등의 최고정책결정기관에 재직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안향은 화려한 경력을 거쳐 1294년(충렬왕 20) 이후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직에 올랐으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왕 측근세력들의 跋扈로 인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안향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학문적인 수준이나 문한적인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의 역관에서 문한기관에의 근무·고려 및 원의 學館職 역임·文翰職 겸직 등을 통해 볼 때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임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학문의 진흥을 위한 공헌은 항상 興學養賢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는 점이나 국학의 재건·瞻學錢의 설치·중국 강남에서의 서적구매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안향이 처음으로 朱熹의 성리학을 고려에 도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긍정·부정의 두 입장이 있어 왔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안향이 성리학의 수용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견해는 수긍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남송의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이 고려에 유입된 것은 안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성리학이 고려에 수용되는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없다.

성리학의 도입에서 안향이 차지한 위상은 높았지만 그의 역할이 당시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1319년(충숙왕 6) 그가 文廟에 從祀될 때 반대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아들 안우기는 정치적으로 실각의 위치에 있었

고, 문생인 尹宣佐·尹安庇·李彦冲·洪侑·金光軾 등도 힘이 되지 못하였다. 단지 충선왕의 지우를 받고 있었던 門生 辛葳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향의 행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려가 大元蒙古國의 諸侯國으로 定着하던 시점에서 정치적 현실을 수궁하면서 안정된 內治의 圖謀와 文風의 振作만이 왕조를 온존시킬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지닌 文翰官僚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慶尙道營主題名記』·『역옹패설』·『가정집』·『목은문고』·『근재집』·『담암일집』·『양촌집』·『曹溪宓庵和尚雜著』·『東人之文五七』·『동문선』·『대동야승』·『회현선생실기』·『存悔齋稿』·『玉峯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

**【참고논문】**

-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2006.
- 金鎔坤, 「고려 충숙왕 6년 安珣의 文廟從祀」, 『이원순교수화갑기념논총』, 교학사, 1986.
- 金春鉉, 「晦軒 安珣의 教育사상」, 『공주교대논문집』 12-2, 1976.
- 金昊鍾, 「安珣의 儒教振興運動에 대한 研究」, 『安東文化』 2, 1981.
- 노평규, 「안향에 대한 사상사적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13, 1992.
- 都賢喆, 「고려 후기 주자학 수용과 주자서 보급」, 『동방학지』 77·78·79합, 1993.
- 朴京安, 「麗末鮮初 順興安氏家の 坡州農莊에 관하여」, 『경기향토사학』 5, 2000.
- 邊銀淑,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세력의 형성배경」, 『명지사론』 11·12합, 2000.
- 孫仁鍊, 「安珣의 教育사상」, 『水邨朴永錫화갑논총 한국사학논총』 하, 1992.
- 李南福, 「고려 후기 朱子學의 수용전개와 安珣의 위치」, 『부산사학』 18, 1990.
- 李錫麟, 「고려시대 유학진흥과 서적편찬」, 『호서사학』 8·9합, 1980.
- 李源明, 「고려 성리학수용의 사상적 배경」,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 李益柱,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1988.
- 張東翼, 「김방경의 생애와 행적」,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 전재강, 「안향의 선비적 면모와 후대적 평가」, 『대동한문학』 14, 2001.
- 森平雅彦, 「朱子學東傳の國際的背景」, 『アジア遊學』 50, 2003.
- \_\_\_\_\_, 「晦軒實記刊行始末初探」, 『年報朝鮮學』 9, 2006.
- \_\_\_\_\_, 「朱子學の高麗傳來と對元關係-安珣朱子學書將來說の再檢討」, 『史淵』 143, 2006.

### 【참고서적】

- 김기주, 『영남의 학맥 1, 안향에서 주세붕까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金柄九, 『晦軒思想研究』, 學文社, 1983.
- 김병구, 『회현 안향선생의 생애와 사적』, 신지서원, 1996.
-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6.
-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노명호 등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 서울대출판부, 2000.
- 邊東明, 『高麗後期 性理學受容研究』, 일조각, 1995.
- 尹瑢均, 『尹文學士遺稿』, 조선인쇄주식회사, 1933.
- 榮州市, 『국역회현선생실기』, 2000.
- 李楠福, 『高麗後期 新興士族의 研究』, 경인문화사, 2004.
-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일조각, 1994.
- \_\_\_\_\_,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 Abstract

## The Life and Career of An Hyang(安珦)

Chang, Dong-Ik

This essay try to analyze the life and career of An Hyang(安珦) who was a government official of Goryeo dynasty in the thirteenth century when Goryeo dynasty was invaded by Yuan empire. And I will recount him with new materials.

After passed in Yebu(禮部), he took an active part in Eosadae(御史臺), Jungseomunhaseong(中書門下省), and so on as a leading government official. And when Goryeo became immediately with Yuan, he was appointed the prime minister through an important office of Zhengdongxingsheng(征東行省). However, he held not real power of government because of domination of the king's close relatives.

There is so difficult to examine about his academic standard or literary ability because literature collections of An Hyang not exist. But we see that he was one of the most famous scholars in Goryeo dynasty. Also we see his contribution of knowledge development through his effort to teaching, reconstruction national academy for studying Korean classics, establishment of Seomhakjeon(贈學錢) and book purchasing in china.

There are two opinions-affirmation and negation about Neo-Confucianism was introduced to An Hyang. Examining thoroughly about reference material, However, we can not accept negative view. And books of Neo-Confucianism in South Sung Empire were imported to Goryeo by An Hyang. For these reason, it has no problem that An Hyang introduced Neo-Confucianism in Goryeo and found Neo-Confucianism in Goryeo. An Hyang had high position to introduce Neo-Confucianism. But it was not distinguished his primary role at that time, in 1319(king Chunguk 6) when he was performed a religious service in Confucian shrine, it was presented the opposing voices to

him.

In short, when Goryeo dynasty was settled down a prince's nation of Yuan empire, he was a civil service with actuality that recognizing political reality, to plan home administration and to stir learning were the best way to preserve in Goryeo dynasty.

**Key Word**

Goryeo dynasty, Yuan empire, An Hyang, Zhengdongxingsheng, Neo-Confucianism

- 논문투고일 : 2008.11.14. 심사시작일 : 2009.1.15. 심사완료일 : 2009.1.30.